

※ 퍼즐 부분을 복사하여 교리 시간 전후에 사용하거나, 예수 성심 성월 교리 시 활용해 보세요.

■ 퍼즐 사용법

1. 학생들과 두 그림을 비교한 뒤 다른 부분을 찾아봅니다.
2. '배우며 가르치며' 를 참고하여 예수 성심과 예수 성심 성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3.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배우며 가르치며〉

예수 성심 성월

'예수 성심'이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기 위해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삼고,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걸맞은 삶을 살 것을 권고합니다.

예수 성심께 대한 공경이 체계를 갖추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기는 성모 방문 수녀회의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1647-1690) 수녀에게 전해진 예수 성심에 관한 메시지에서 비롯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성인에게 무려 70여 회나 발현하시어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을 알려 주셨다고 합니다.

알라코크 성인이 이 환시 체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예수 성심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 ② 예수 성심을 통해 나타나는 하느님의 사랑은 그에 보답하는 인간의 사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갈망하신다.
- ③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세상의 죄악을 배상하는 탁월한 방법으로, 예수 성심께서는 우리가 영성체를 모시고 성시간 기도를 바치기를 바라신다.
- ④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특별한 축일을 제정하여 지내라.

이후 교회가 알라코크 성인이 받은 계시를 인정하면서 예수 성심 신심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는데, 특히 교황 비오 9세는 예수 성심 축일을 전 세계 교회의 축일로 확대했고, 교황 레오 13세는 전 인류를 예수 성심께 봉헌하였으며, 예수 성심 축일을 대축일로 제정하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예수 성심 성월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열리는 신심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중 성시간은 갯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한 시간 동안 묵상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마태 26, 40)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시작된 신심 행위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가톨릭 디다케」 2013년 6월 '교리 아락살'



〈정답〉